



‘보릿고개’ 두 남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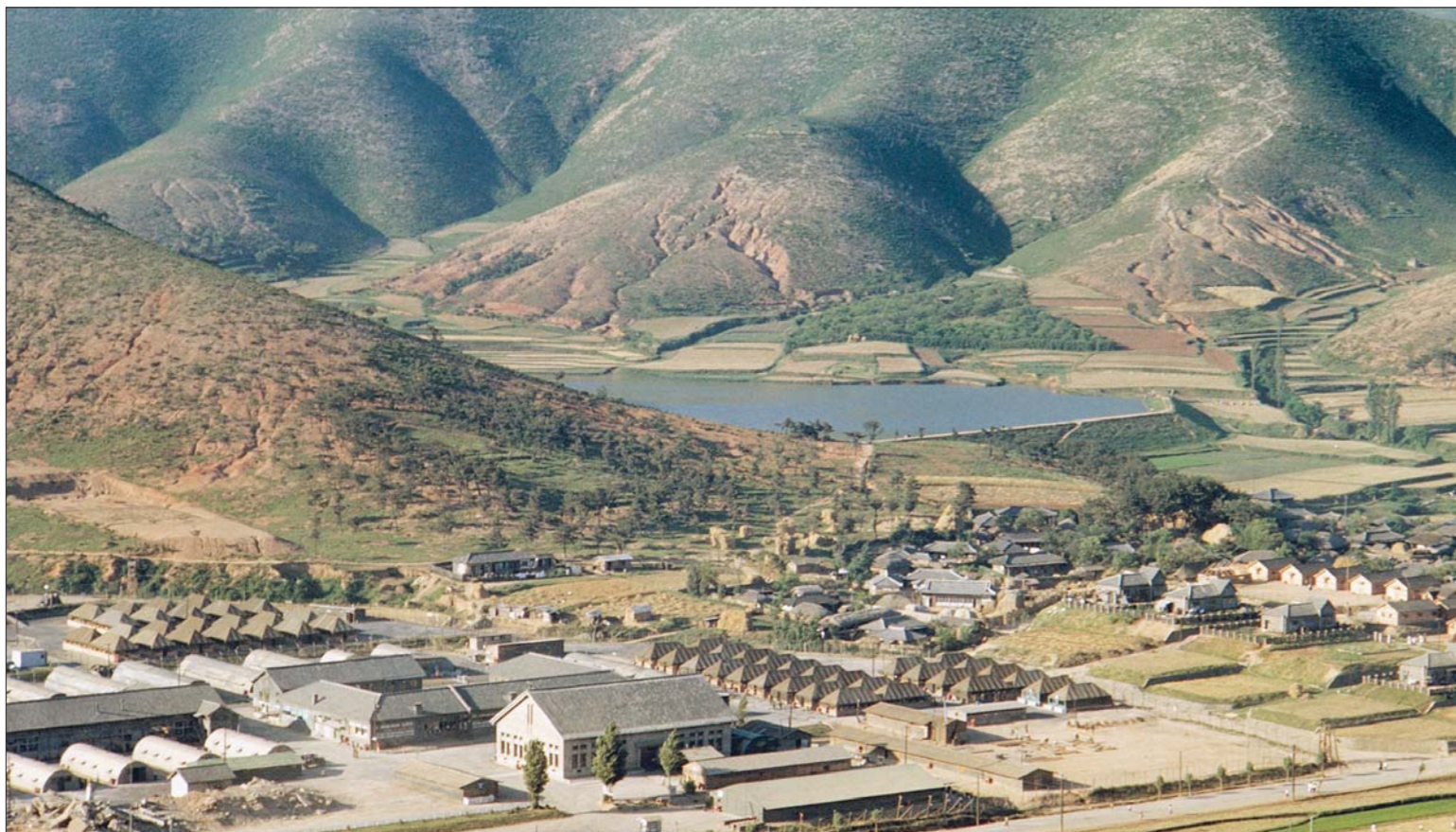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남구의 근현대사

1952년 대연1동 대연중학교 위의 보리밭에서 어린 두 남매가 보릿단을 쥐고 웃고 있다. 사진 속 모습이 평화로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당시에는 보리타작을 끝낸 밭에서 이삭을 주워 한 끼를 해 먹는 이들이 많았다. 적박했던 기억은 세월을 건너면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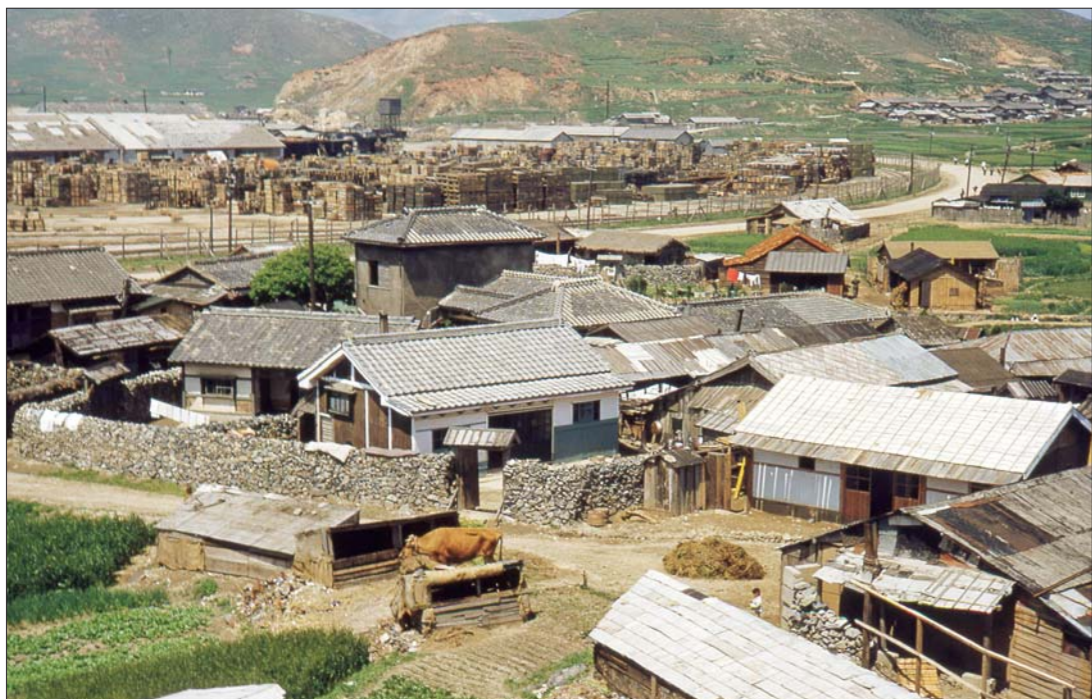
남구는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아 남구의 근현대사를 사진으로 감무리하는 화보집을 발간했다. “그리운 시절, 남촌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이번 화보집은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구의 다양한 생활상을 포착한 사진물을 담고 있다.

화보집은 향토사학자인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이 오랫동안 수집, 보관해 온 사진과 남구 주민들의 앨범에 잠들어 있던 사진 등을 발굴해 수록했다. 몇몇 회귀사진들이 이번 화보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남구의 근현대사를 보존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사진제공 :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장



지금은 사라진 못골풍경 1950년대 초, 산과 연못, 마을과 미 공군사령부가 한 사진에 모두 담긴 회귀사진이다. 못골연못에 물은 가득 찼으나 산사태가 난 혈범은 산에선 가난했던 삶이 전해진다. 부산공업중학교 자리에는 미군과 육군병참학교가 차지해 막사가 뻗백하게 도열하고 있다. 오른쪽 낮은 언덕 위의 울타리가 있는 집은 부산수산대학의 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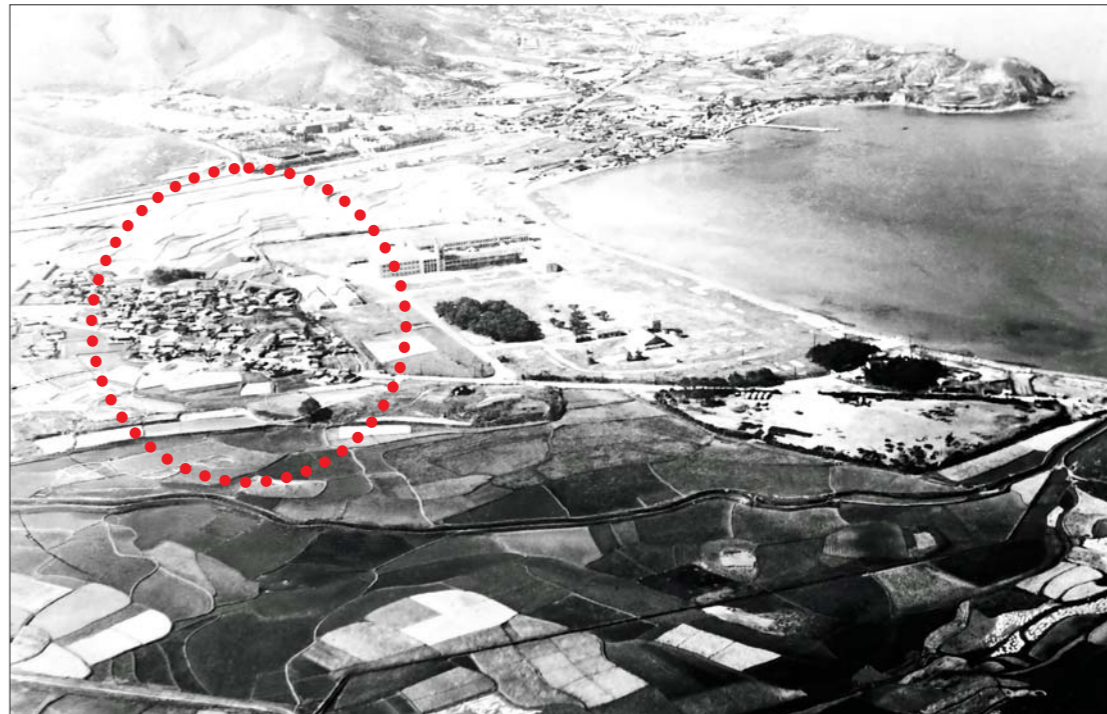


감만동의 마을 풍경 감만동 8부두 사거리 근처 1951년도 사진이다. 누렁이 황소도 보이고 제법 집들이 반듯하다. 한가로운 마을 풍경 뒤로 미군 군수품이 가득 쌓인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석포마을과 유엔기념공원 1950년대 초 웅기중기 초가들이 모여 있는 석포마을 풍경이 평화롭다. 사진 가운데 유엔기념공원(당시 유엔묘지)이 막 조성되고 있다. 들판에는 보리타작이 끝났는지 물을 댄 논이 마치 늪지대처럼 보인다.

남구의 뿌리를 찾아서 ① 용소 마을의 유래와 성씨들



1950년대 대연동의 용소마을(점선 안) 모습이다. 마을 근처로 용주벌판과 부산수산대학교 등이 보인다. 좌측 줄간의 작은 두 송림 맞은편의 공터는 6·25전쟁 때 사용했던 폐차를 쌓아 두었던 곳이다. 대학 앞 바닷가에 긴 모래톱이 보인다.

550년 전 ‘이항징 일가’ 첫 이주

늪에서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 옛 지명 ‘고이리’

용소 마을은 예부터 바닷가의 언덕인 갯벌터에 있어 바닷바람을 막아주었으며, 해안에는 모래톱으로 형성된 수심이 얇고 사장이 넓은 용소해수욕장이 있었다. 남쪽에는 덕송산, 서쪽에는 낮은 구릉이 있어 북서풍을 막아주는 아늑한 마을이었다. 용호동과 석포의 경계지역에 형성된 늪지대의 모습이 마치 용(龍)이 늪(沼)에서 일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과 같다고 하여 용소(龍沼)라고 불려졌다. 이 늪 지역은 황령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갇혀서 형성되었는데, 부산예술회관과 부산교통방송국 주위 일대에서 대천초등학교 인근까지 약 7,000평 정도였다고 한다. 늪지대의 대부분은 논을 개간하여 이용하였으나, 겨울에는 늪지대의 물이 얼면 아이들의 썰매놀이터가 되었다.

용소 마을의 대표적 성씨는 경주 이 씨와 금산 김 씨, 남평 문 씨와 김해 김 씨 등이다.

경주 이 씨의 시조는 표암공 알평(瓢巖公 關平)이며, 증시조는 신라의 소관공 이거명(蘇判公 李居明)과 그의 17세손인 익재공 이재현(益濟公 李齊賢)이다. 용소마을의 입향조는 소관공의 26세손인 이항징(李亢澄)인데, 그는 약 550년 전인 조선조 초에 용소 지역에 이주해 왔다. 그의 증손자인 이덕춘(李德春) 묘소의 기록에 용소의 옛 지명이 고이리(古李里) 즉 ‘오래 전부터 이 씨들이 살았던 고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용소의 옛 지명이 고이리(古李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230년 전에 이동률(李東律)의 세 아들 중 이섭(李燮)과 기섭(棋燮)은 용호동으로 이주하였고, 양섭(良燮)은 용소에 거주하였다. 족보에 양섭의 산소가 의부지(義婦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대의 두 기생의 무덤이 있는 곳과 불과 30여m 떨어진 곳이어서 향토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주 이 씨는 현재 남구에는 주로 대연동의 용소마을과 용호동에 일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연동에 이상기, 이상길, 이소명 등이, 용호동에 이성윤, 이정부 등이 거주하고 있다.

금산 김 씨의 입향조는 김신(金旿)의 18세손 되는 김진엽(金震華 1626~1681)이다. 그는 인조 병인년 6월에 출생하여 1655년경에 장령군 영산읍에서 용소로 이주하였다. 24세손인 의노(義魯) 이후에 자손들은 용호동과 용당 사이에 있는 수장산을 선산으로 하여 묘소가 있다. 25세손인 재일(在一)은 1875년경에 인근의 청소년들이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서당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제공하고 동래의 한학자인 송문섭을 훈장으로 모셨다. 이 서당 출신들이 김재일이 작고하였을 때에 그의 은덕을 기리어 비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를 ‘비석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용소의 원주민 중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씨족인데, 금산 김 씨 용소문중의 종가로는 29세의 김준(金駿)과 30세손인 김배근(金培根)이 대연3동에 거주하고 있다.

남평 문 씨와 김해 김 씨는 지금부터 약 300년 전인 1710년 경에 용소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지금부터 140년 전에 여산 송 씨의 입향조는 동래읍의 한학자인 송문섭(宋文燮)이며, 금령 김 씨의 입향조는 송문섭을 이어 용소서당의 훈장으로 모셔온 기장의 한학자 김진성(金鎭晟)이 120년 전에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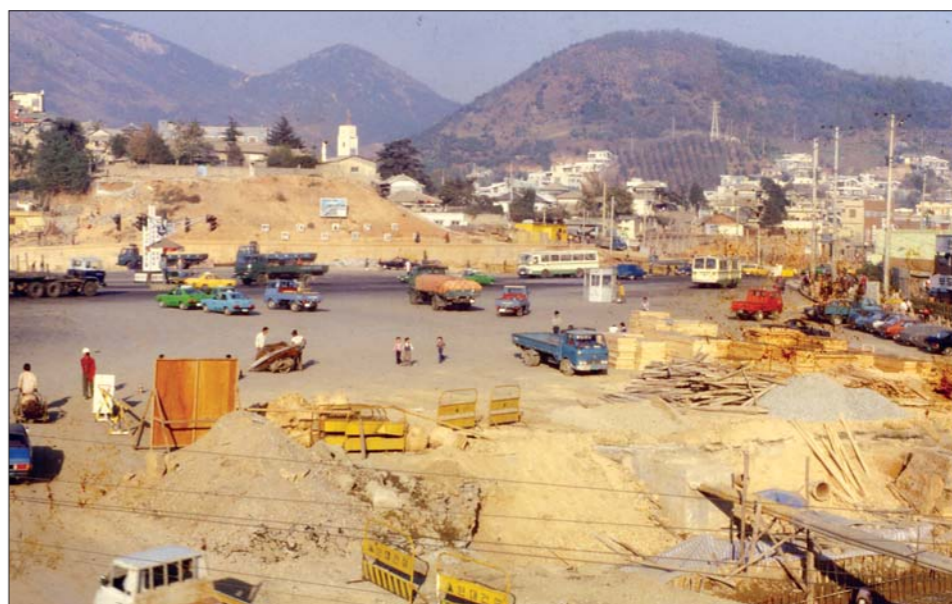
현재 용소마을은 부경대학교 대연동 캠퍼스가 위치하여 교육과 상업중심지의 마을로 자리잡고 있다. 부경대학교의 맞은편에 있었던 큰 새미와 장사소나무(당산목)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은 예부터 향학열이 높았으며, 협동심이 강하며 상부상조를 절하는 마을이다. 아직도 마을의 단합과 안락을 위하여 용소당제(龍沼堂祭)를 지내고 있으며, 용소향우회, 용소경로당이 있어 주민들의 친목을 다지고 있는 마을이다.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문현동의 상전벽해

1980년(사진 위)과 현재의 문현동 로터리 일대 풍경이다. 도로를 건설하느라 주위가 어수선하다. 고가도로 아래는 자성대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우암동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교차되어 있다. 삼성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일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이 든 아낙이 아이를 업고 못골연못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연못은 만수(滿水)되어 있고 뒤면 보리밭은 푸르르다.



용호동 염전 1960년대 용호동 염전사진이다. 용호동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짭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1975년 남구청 개청 남구는 지난 1975년 10월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에서 남구로 승격했다. 개청 초기 현재 남구노인복지관 자리를 청사로 사용했다.

